

##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불안정한 현실과 교회의 역할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Unstable Reality of Unmarried Middle-Aged Female Temporary Workers and the Role of the Church

김주경(Joo-Kyung Kim)\*

오대희(Dae-Hee Oh)(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unstable life of unmarried, middle-aged, female temporary workers in church,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marriage based on biblical point of view and the role of church for them. On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stated in bible, as orphan and widow, is the middle-aged unmarried women in church with difficult financial circumstances and living an involuntary single life. This study intended to help them receive the holistic salvation in church, with a hope f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to live their lives with confidence, without getting alienated in society. To this end,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using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in-depth interview. In conclusion, the interviews resulted with the topics: The current single life and church life, Living alone in later years and position in the church, Expectations on the role of the church. Based on Apostle Paul's claim, regardless of married or not, it is important to view them as fellow workers in church, who are participating in expanding the kingdom of Go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hurches to support single middle-aged, female temporary workers, both spiritually and physically for them to carry out good christian work, which is the recovery of redemption as a holistic person.

**Key Words** : temporary work, unmarried middle-aged women, unstable reality, the role of the church

---

\*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jookyung858@hanmail.net

\*\*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5day5@naver.com

## 1. 서론

본 연구는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통해 교회 내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실적 삶을 이해하고 성경적 입장에 근거한 결혼관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자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10년간<sup>1)</sup> 비혼 여성의 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성 1인가구는 2000년 128만 가구에서 2017년 283만 가구로 120.9% 증가하였다. 특히 45세 이상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였다(통계청, 2018). 1인 가구의 급증은 비혼의 증가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한국 사회의 어디에서든 비혼 여성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비혼 여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노처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능력있는 ‘골드미스’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나(김효정, 2017), 현실적으로 비혼의 삶을 살고 있는 ‘골드미스’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 2016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일하고 있는 30-40대 비혼 여성의 60%만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비혼 여성의 직업 안정성이 높지 않으며, 많은 비혼 여성이 비정규직 삶을 살면서 사회의 편견과 더불어 생활의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비혼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들의 독신생활이 고착화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김효정, 2017). 또한 사적인 관계망도 자연스럽게 좁아질 것이며 특정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혼 여성은 고독하고 불안정한 노후를 염려하며 나이가 들어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노후 준비를 혼자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생활고로 인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미혜(2013)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아니라 가족 차원의 노인 부양을 우선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주의 인식이 정책이나 제도에도 반영되어 부양을 해 줄 가족이 없는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경우, 책임을 수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손병덕 외, 2014) 가족 차원의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편견과 더불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비

---

1)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2015)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30-40대 비혼 여성은 138만 4047명이다. 10년 전 비혼 여성의 수는 66만 3513명이었다.

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노화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교회의 경우, 교회 내 남녀 청년 성비를 보면 남성의 수보다 여성의 수가 월등히 높은 편이다. 시간이 갈수록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성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그 연령도 예전에 비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내 대형 교회 5곳에서 청년부 구성원 성비를 살펴본 결과 대략 7대 3정도로 여성이 훨씬 많았으며(쿠키뉴스, 2012. 8. 24.)<sup>2)</sup> 2010년 서울의 한 대형교회의 청년공동체에서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33-44세 청년들 중 남자가 34.9%,여자가 65.1%로 집계되었다. 대형교회는 그나마 싱글 형제들이 많은 편이다. 작은 교회나 지역교회의 경우 체감성비는 8:2에서 9:1로 느껴진다(온누리교회 신문, 2014, pp.4-5). 이런 상황가운데 사실 교회 내 비혼 여성을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 내의 원치 않는 비자발적 비혼의 삶을 사는 이들을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서 교회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다르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관점만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신앙으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영적인 공급과 육적인 공급을 제공해야 하는 이중적인 사명이 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영혼구원을 위해 힘써야 하며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고 하며 이원론적인 관점만을 강조한다면, 현재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보다는 현실 준비를 위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심한 경우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 속으로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가 교회로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요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리에 따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남성이 아닌 비혼 중년 여성을

2) “강남스타일 교회 오빠 어디로 갔지?”쿠키뉴스, 201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375300&cp=mv>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근거하였으며(김정원 외, 2005), 이에 따라 비혼 여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비정규직 중년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치가 어떠한지, 그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교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비혼 여성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때 본 연구가 그 기초 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비정규직, 비혼, 중년여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한다. 먼저 비정규직(非正規職, 영어: temporary work, temporary employment, precarious work)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비정규직 고용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 고용노동자들을 뜻한다(<https://ko.wikipedia.org/wiki/%EB%B9%84%EC%A0%85%EA%B7%9C%EC%A7%8>).

‘비혼’이란 용어는 독신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아직 미(未)자’가 아닌 ‘아닐 비(非)자’를 써서 사용한다(엄구선, 2015). 이 용어는 여성주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먼저 사용되었으나 최근의 경향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든지 ‘비혼’이라는 용어가 ‘미혼’이나 ‘독신’을 대체하는 용어로 일반화되는 추세이다(강은영, 2010).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현재 법적으로 혼인 경험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한다.

중년 여성은 중년기 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 연구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을 40세에서 60세로 보고 있다(임경수, 2002; 김명자, 1991; 윤진, 1985). 본 연구에서는 엄구선(2015)의 견해를 따라 중년기를 40세에서 59세 사이로 정의하고 연구의 대상자는 40세-59세로 제한한다.

## II. 관련연구 고찰

### 1. 비정규직과 비혼 중년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 연구들에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13), 공공부문에서 고용불안, 임금 및 처우의 열악함, 출산 육아 관련 혜택의 미비함에 대한

비정규직 여성의 근로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한 연구(윤자영, 2013), 여성 노동에 있어 주요문제가 무엇이며 여성 비정규직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권혜자, 2017; 김유선, 2015), 경력단절 비정규직 여성의 경험과 그들의 일과 가족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문은미, 2016; 김문수, 2016), 여성들의 비정규직 노동경험에 대한 연구(박옥주, 2016; 신경희, 2016; 송다솜 & 손승영, 2016)와 그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하고(손승영, 2016), 근로조건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그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여성가족부, 2012)들이 있다.

비정규직 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기는 했으나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다양한 종류로 나타난다. 국가인권위원회(2013)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체계의 최저점에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 비인격적 대우 등 비합리적인 근로조건을 감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들의 낮은 노동시장 지위는 인적 자본이나 노동생산성과 같은 개인적 격차로만 설명할 수 없는, 차별(discrimination)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요인이 다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 차별(complex discrimination)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수준 또한 차이가 있다. 김유선(2013)에 의하면 2013년 3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의 35.4%, 정규직 여성의 55.3%, 비정규직 남성의 65.7%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계조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성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권혜자, 2017). 여성노동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혼자 연구는 결혼은 선택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개척하는 집단의 생활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저출산의 원인 제공자로 간주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되는 연구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성미애, 201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비혼 중년 여성에 대한 연구는 저출산 해결 의도보다는 결혼은 선택이며 기존의 삶의 양식이 아닌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비혼 중년 여성의 문제는 단순히 시대적 흐름에 따른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사회의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혼 중년 여성가구를 포함한 세대별, 성별 1인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에 대한 연구(김중숙

외, 2014)에서는 중년기 여성 1인가구는 자산보유가 열악하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으며, 이 시기는 여성의 생애기간 중 돌봄 부담과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 경제적 역량이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비혼 1인가구는 경제적 불안감과 노후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여성과 저학력자, 저소득층, 이혼자 집단 등의 취약집단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 건, 2016). 강은나 외(2015)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 1인가구는 노년 1인가구와 특성이 유사하며, 단지 위험이나 문제의 강도에 있어 노년층에 비해 낮은 상태라고 했다. 즉, 경제적 노후준비수준이 열악하고, 낮은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건강과 관련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중년다인가구에 비해 떨어지며, 주거환경 역시 열악하다고 보고했다.

## 2. 교회의 복지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부로 함께 만드셨다(창 2:18, 22-25).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 1:27-28).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다. ‘생육과 번성’은 ‘결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남녀의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지상에 편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으며, 이 명령은 타락 이후에는 선교적 명령으로 그 성격이 변화된다(이재서, 2013).

신약성경에서의 결혼관은 구약에서의 결혼관과 다른 관점에서 시작한다. 사도 바울은 결혼 관계에 대한 교훈에 있어서 그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전례적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관점 하에서 보고 있다(엡 5:22-23).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결

혼관계로써 묘사하고 있다(박영희 역, 1985).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부는 세속의 부부보다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부부결혼의 신비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절의 인식으로 인해 인정되는 곳인 다른 차원 위에 있다. 이것은 교회의 의무가 세상에 진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부부의 의무도 모든 결혼의 진리를 밝혀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7:7절에 의하면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역이고 은혜이다(한희신, 2003).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32-35절에서 독신생활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자유롭기 때문에 좋다고 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배경은 고린도전서 7:25-4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종말론적 동기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형태로는 가정을 가진 경우보다 독신이 훨씬 더 자유롭고 헌신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여러 가지 일들과 싸워야 한다.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대신하거나 그 일에 도전이 되기도 한다. 결국 관심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세상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강혜란, 2003).

성경에 따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중 하나이다. 그러나 타락 이후, 결혼에 대한 성격이 '생육과 번성'에서 '선교적 명령'으로 변화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으라(마 28:19; 막 16:15)"는 복음전파의 관점으로 변화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역의 관점에서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결혼을 했을 경우, 그리스도인 부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부의 의무를 다하므로 세속의 부부에게 모범을 보이는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사명을 다해야 하며(마 5:14), 독신생활을 하는 이에게는 오직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전념하므로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마 5:13).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 내의 비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달라지기 마련이다.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시각에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혼 여성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이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회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

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까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약자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이었다(이재서, 2013). 이들의 돌봄에 대한 당위성은 구약성경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떼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신 24:19-21).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사 10:2).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마11:4-5; 눅7:19-22; 마15:32-39; 막8:1-10).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행4:32).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은 항상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계시면서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 주셨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 주시는 등 세상 속에서 현실을 사는 백성에게 각자 필요한 부분을 알맞게 채워 주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 등의 사회적 약자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비자발적 비혼의 삶을 사는 교회 내의 비혼 중년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 내의 약자 중의 한 부류인 비혼 중년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살펴야 한다.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영혼을 풍성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전인 구원의 관점(이재서, 2013)에서 육체적이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이 마땅하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저출산과 관련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비혼 여성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혼 중년 여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많지 않다. 1인 가구의 연구 선상에서 중년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연구와 그 외 비혼 여성에 대한 연구의 확장으로 비혼 중년 여성을 연구하였으며 대부분 그들의 결혼관, 노후에 대한 불안 등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녀성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교회 내에서의 비자발적 비혼의 삶을 살며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교회생활에 대한 생각을 듣고 그들을 먼저 이해하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성경적 입장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회 내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현실적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경험하고 기대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감 있는 관찰을 위해 개별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내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의 삶은 어떠한가?

둘째, 교회 내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면담에서 사용된 반구조화 된 면담질문의 내용은 비혼 여성으로서의 교회생활과 어려움, 비혼의 삶을 선택하게 된 동기, 현재 경제적인 상황,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비혼여성으로서 교회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한 개방적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는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현재 서울시에 있는 장로교 합동측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로서 과거와 현재 법적으로 혼인경험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며, 현재 연령이 40세에서 55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참여자들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한 후 일정을 정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2018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소요된 시간은 사례별로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다. 면접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미리 전화로 약속시간과 장소를 잡고 면담을 하였으며, 면담 중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이나 반응 혹은 의미 있는 내용은 연구자가 현장노트에 상세 기술하였다. 참여자5는 면담 중 가정에 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1시간정도 면담한 후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 다시 약속을 잡고 면담을 진행했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은 전화나 메시지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 주요 질문, 소요시간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면담 내용에서의 모든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보장과 함께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기록된 모든 자료들은 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파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 3.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는 40대가 2명, 50대가 5명으로 평균 연령은 51.4세이다. 교육수준은 대학원 중퇴가 1명, 고졸이 2명, 나머지는 대학 졸업으로 학력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

다. 직업은 번역가, 화장품 판매원, 강사, 사무직 종사자, 프리랜스 디자이너, 식당종업원, 학습지 방문교사이다. 거주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후 자매들만 함께 사는 경우가 1명, 어머니 사후 아버지와 사는 경우가 1명, 그 외 나머지는 모두 형제자매가 결혼한 후 본인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이다. 주택 소유 형태를 보면, 부모님 소유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6명이며, 부모님 소유 주택이었으나 돌아가신 후 여동생의 명의로 된 경우가 1명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의 내용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ame	Age	Education	Job	Monthly Income (unit: millian won)	Years of being in Christianity	Cohabitee	Residence ownership
1	54	college graduate	translator	1.5	from birth	parents	parents' house
2	54	college graduate	salesperson	1.5	30 years	parents	parents' house
3	51	college graduate	instructor	2.0	from birth	parents	parents' house
4	54	high school graduate	office worker	1.5	from birth	parents	parents' house
5	48	quit graduate school	freelance designer	irregular income	from birth	parents	parents' house
6	49	high school graduate	a restaurant employee	0.8	from birth	sister	apartment belong to her sister
7	50	college graduate	home-study teacher	0.8	35 years	father	fathers' house

#### 4. 연구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6단계의 주제 분석법으로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제 분석은 주관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일상 세계를 귀납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며 복잡한 데이터에서 범주화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진영은 역,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회 내 비혼 중년 여성의 현실의 삶과 교회생활에 대한 각자의 주관적 경험을 듣고 성경적 입장에 근거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서술하였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자료와 친숙해지는 단계(Familiarizing yourself with data)로써 연구자의 편견이 배제되도록 하였다. 2단계에서는 초기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Generating initial codes)로써 전체적으로 각 사례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고 각 사례별 특성을 구분해 코드를 생성하였다. 3단계는 주제를 찾는 단계(Searching for themes)이다. 따라서 2단계 코딩작업에서 도출된 공통된 개념끼리 묶어 의미 있는 주제를 추출하였다. 4단계는 주제 확인단계(Reviewing themes)로 3단계에서 추출한 주제가 전체적으로 잘 연결되는지 파악하고 유사한 주제끼리 묶고 범주화하였다. 5단계는 주제 정의 및 주제의 명명화 작업(Defining and naming themes)을 하는 단계이다. 도출된 범주는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불안정한 현실과 교회의 역할이었으므로 현재 비혼의 삶과 교회생활, 홀로 맞을 노후와 교회에서의 위치, 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명명화 하였다. 6단계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Producing report)로 각 주제들의 내용을 기술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의 엄격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경험 등이 작용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내용이 올바른지 확인하였고, 부족하거나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와 e-mail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 분야 박사과정생의 조언과 질적연구에 경험이 풍부한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으며 연구결과를 점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Braun & Clarke(2006)의 6단계 주제 분석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질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함’, ‘교회 내 비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과 부딪침’, ‘홀로 살아갈 노후가 두려움’, ‘교회의 짐으로 전락할 것 같아 불안함’, ‘영적 부분: 영적 성숙을 위한 체계적인 양육시스템’, ‘육적 부분: 교회 차원의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라는 6개의 하위주제와 ‘현재 비혼의 삶과 교회생활’, ‘홀로 맞을 노후와 교회에서의 위

치, ‘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라는 3개의 주제로 요약되었으며, Table 2와 같다. 교회 내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현실의 삶을 통해 비혼 중년 여성의 체계적인 노후계획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며, 교회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부모님 사후 본인의 건강, 주거, 경제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 좁아진 사적 관계망에 의존하기보다 가까운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더 현실적인 것임을 인지하게 된다.

Table 2 Topic and subtopic

Topic	Subtopic
The current single life and church life	Financially · mentally unstable
	Encountering negative views as singles in church
Living alone in later years and position in the church	Fear of living alone in later years
	Insecurity of becoming a burden to the church
Expectations on the role of the church	Spiritual part: Systematic rearing system for spiritual maturity
	Physical part: Supporting service for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 1. 현재 비혼의 삶과 교회생활

### (1) 물질적 · 정신적으로 불안정함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해 온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다. 참여자 2와 참여자 7은 30년 이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으며 나머지 참여자들은 모두 모태신앙이다. 참여자 4와 참여자 5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는 현재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다.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겠거니 생각했으나 개인적인 여러 상황에 의해 결혼의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결혼이 자발적이었는지 비자발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참여자 7명 모두 비자발적이었다고 대답했다. 가정형편과 건강 등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과 여건에 의해 비자발적 비혼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한국에 IMF가 왔었어요. 그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집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유학도중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한국에 나오지 말고 끝까지 있으라고 했어요. “어쨌든 너는 학교 마치고 오라”고 연락

을 하셨어요. 저는 겨우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예전의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작은 집에 온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결혼할 나이죠. 저는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참여자 5)

“제가 생식기쪽 그러니까 난소 한쪽을 없앴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노화현상이 빨리 오게 됐어요. 병나고 수술하면서 나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없겠구나. 그러고는 어영부영 지금 까지 오게 됐네요.”(참여자 3)

비혼 중년 여성은 비혼의 삶을 살면서 여러 곳에서 비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에서는 비혼자에 대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참여자 1, 2, 4, 6), 가끔 감정적인 성품을 드러낼 때마다 이기적인 성품 때문에 결혼을 못했다(참여자 3)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대할 때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비혼 여성들은 꼭 어떤 개인의 잘못에 의한 개인적인 문제와 이기적인 성품보다는 가정의 형편이나 건강상의 질병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비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 겪는 불편함과 함께 비혼 중년 여성들이 겪는 현실에서의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서 집세를 내지는 않아요. 그것만 해도 큰 이익이죠. 그러나 부모님은 이미 연세가 드셨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는 제가 버는 것으로 해결해요. 항상 빠듯하죠. 집안에 어떤 행사나 큰일이 생기거나 하면 힘들어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선뜻 얘기하기도 그렇죠.”(참여자 4)

“지금 동생 집에 얹혀 살아요. 동생이 디자이너인데 프리랜서로 일해서 어떤 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때에는 못 벌어요. 생활비를 동생이 많이 보태고 있어요. 제가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서...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배워서 나중에 내 가게를 해야지 했는데 막상 식당에서 일을 해보니 내 가게 할 생각은 접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당장 그만 두고 싶지만 소개해 준 분 체면도 있고 해서 그러지도 못하고...생활비를 제대로 보태지 못해 동생한테 항상 미안해요...”(참여자 6)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참여자는 참여자 6을 제외한 6명이다. 참여자 3은 부모님께서 저축해 두신 재정이 있어 현재 생활하는데 어렵지는 않지만 앞으로 부모님 병원비 등을 감안할 때 아주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그 외 참여자 1, 2, 4, 5, 7은 부모님 집에서 함께 동거함으로써 집세의 부담은 줄지만 부모님은 연세가 있어서 1주일에도

2-3일 정도는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출가하고 비혼이라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에 남아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부모님의 병원비 등 넉넉하지 않은 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함께 져야 하는 상황이다.

직장에서 실직하여 힘든 상황에 처했던 참여자도 있었다(참여자 1, 6). 누구에게 선뜻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서 복지정책을 받아 볼까 하고 지원을 해 보았다는 참여자도 있었다(참여자 1, 6). 정책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했으나 기대했던 것만큼의 혜택을 지원받지 못했고, 그 혜택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비혼 중년 여성을 위한 혜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의견들이었다.

“실직하고 7개월 정도 쉰 때였어요. 혜택받을까 하고 여기저기 전화해 보다가 실업급여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 때 혜택은 국민연금이 8만원이었는데, 30%는 본인이 부담하고, 70%는 나라에서 해 주는 것 정도였어요.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요즈음은 월급 금액에 상관없이 최저금액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최저금액 1,400,000 좀 안되게 받았어요...(중략) 기초수급자 신청은 해당되지 않아 하지도 않았으나, 해당자가 되는 것은 까다로웠어요. 나같이 결혼 안하고 혼자 먹고 살아야 하는 여자가 정책지원으로 어떤 큰 도움을 받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1)

“직장 잃고 실업급여 받은 적 있어요. 요즈음은 약 140만원선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전 직장에 다닌 연수에 따라 개월 수가 달라지더라고요. 10년 이상 직장 다닌 사람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3년 정도 직장생활 했을 때는 3개월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3개월 받았어요. 실업급여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나같이 나이 들고 결혼 안한 여자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참여자 6)

“어려울 때 정책적 지원을 한 번 받아볼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된 문제를 안고 살기에 나라에 정책적으로 요구한다 해도 합리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요. 그래서 그만 두었어요”(참여자 5)

## (2) 교회 내 비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과 부딪침

비혼자로서 겪는 사회적 편견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했다. 교회라고 해서 모두 성숙된 크리스찬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비혼자를 향한 편견이 담긴 어투나 시선을 느낄 때 마음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느닷없이 “아직 결혼 안했어? 빨리 해야지” 하고 던지시는 말이 가끔 상처가 된다고

한다(참여자 6, 7).

“우리 또래 결혼하신 분들은 여전도회에서 활동하고 우리는 여전도회가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나 다른 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건데...우리가 비혼이고 소수이다보니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활동을 하는 양은 비슷하다고 봐요. 오히려 우리가 더 교회사역을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세상이나 교회나 이런 시각이 비슷하다고 봐요. 직장에서는 ‘나이가 있는데 왜 결혼 안했어?’ 하고 물으면 ‘응 안했는데 왜? 나이 많다고 해야 해?’하고 되받아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받아치지 못하겠어요. 이런 질문을 차라리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때가 아니어서 안한거다 생각하고 사역을 똑같이 하면 되는데 꼭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보는 시각이나 교회 안에서의 시각이나 똑 같다고 생각해요”(참여자 6)

“교회 어른들의 시선이 걸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죠. 같은 사역을 하는데 결혼 안했다는 이유로 괜히 눈치 아닌 눈치를 볼 때가 있다니까요”(참여자 4)

“신앙과 인격이 매치가 안되는 분들을 상대할 때, 마음이 참 어려워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런 저런 사람이 많기 마련인데...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말도 함부로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같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여전히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할 때 ‘너는 결혼을 안 해서 모를 거야’하시며 소외감을 느끼는 하시는 분 있잖아요?”(참여자 3)

## 2. 홀로 맞을 노후와 교회에서의 위치

### (1) 홀로 살아갈 노후가 두려움

연구 참여자 중 참여자 6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모님의 사후 자신의 거처에 대한 불안함을 나타내었다. 경제적인 어떤 대책도 구체적으로 세워둔 연구 참여자는 없었다. 형제자매와의 교류에 대해서도 현재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서 형제자매들이 찾아오지만,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형제자매들과의 교류도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참여자 1, 2, 3, 4, 5, 7). 결국 혼자 남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독거노인이 될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참여자 1, 3, 5). 그래서 지금부터 독거노인이 되었을 때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고, 그들에게 밥을 사주기도 한다고 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다면, 형제들이 있긴 해도 경제적 부분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노후 대책은 많이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직장은 계속 다니지만 돈을 많이 모으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생활비 하느라 빠듯해요. 노후계획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유산에 대해 전혀 기대 안하게 하진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긴 한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 설계 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면담을 하니 이제부터 서서히 내 노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참여자 2)

“현실이 혼자이기에 독거노인의 미래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불확실한 미래이기에 대책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참여자 5)

“나중에 혹시 이 상태로 가면, 내가 고독사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이들, 아는 이들을 미리 사귀고 나를 나중에라도 케어할 수 있도록 심어 놓고 있어요(웃음). 조카가 있긴 해도... 외가와 친가가 있는데, 나중에 되면 어찌될지 모르지만, 엄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참여자 3)

연구 참여자 대부분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므로 주거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비나 부모님 병원비 등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참여자 1). 이와 관련해서 이들과 달리 부모님 집에서 살지 않는 비혼 중년 여성은 생활비와 함께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2) 교회의 집으로 전락할 것 같아 불안함

앞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해 교회의 집이 될까 우려된다고 하는 참여자가 있었으며, 사회생활을 통해 느끼는 사회적 편견을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천으로 인해 교회에서도 계속 느끼게 된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여유가 되면, 새벽기도도 가고 싶어요. 하지만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해요. 진도도 더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몸이 벌써 예전 같지 않네요”(참여자 1)

“모아둔 재산도 없고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모으려고 하지만 노후 대책이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리다가 나이가 더 들어서 몸도 약해지고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교회에 집이 되는 독거노인이 될까봐 걱정이 돼요”(참여자 6)

### 3. 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

#### (1) 영(靈)적 부분3): 영적 성숙을 위한 체계적인 양육시스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현재 교회생활에 대해 큰 불만은 없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해 주어서 잘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인 만큼 어려운 상황과 갈등 등의 발생 시에 교회 공동체로부터 진심어린 기도의 힘을 가장 받고 싶어 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아..그 때 결혼할 걸 하는 생각이 들 때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 올 때 있어요. 그 때 불안 해 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죠’하고 기도해요. 여태까지 잘 왔는데... 하고 생각해요. 의외로 내가 소심하고 소극적이예요. 예전에 수면제 먹었던 적이 있어요. 6개월 전에 수면제 끊었어요. 한 3, 4개월 정도 무기력 상태에서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 친구들 찾아왔으나 다 귀찮았어요. ‘내가 왜 이래?’ ‘저 애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다 하루 사는데 하는 생각을 하며 무작정 걸었는데 따뜻한 햇볕이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설교 들었는데 ‘지금까지 하라 했는데...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 커피를 마시고 떠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때 교회 공동체에서 저를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해 주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참여자 1)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고 교회 내의 여러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참여자가 있었다. 또한 소그룹 모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직장인으로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장인 예배에 대해 많은 기대를 보이는 참여자도 있었다.

“구약과노라마, 신약과노라마와 같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부 강사를 부르는 것 보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해 주셔도 좋지만 교회 성도들 중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연구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7)

---

3) 여기서 영(靈)적 부분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 외에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영적인 부분을 말한다.

“그냥 각 교회 기관의 사역에 참여를 열심히 하면, 영적으로 자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관 사역, 선교, 그 외 프로그램 등...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 들어서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1)

“우리교회가 소그룹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소그룹이 더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소그룹 리더들의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고, 담임목사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셔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직장선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는 수요직장인예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직장 내에서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교회가 직장인을 위해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참여자 2)

**(2) 육(肉)적인 부분4): 교회 차원의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현실적으로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그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할 때 교회가 비공개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참여자가 있었다(참여자 1, 2, 4, 6). 경제적인 부분 외에 중년의 나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결혼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교회가 중년여성을 위한 결혼 매칭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오히려 요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 있죠. 부모님 연세가 드시니까...나중에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플 때 보호자 사인이 필요할 때 부모님 안계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결혼에 대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누가 중매를 서 주지 않으려나?”(참여자 3)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교회에는 매칭 시켜주는 곳이 있어요. 지원서, 접수, 맞는 사람 매칭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에도 이런 매칭시켜주는 기관이 있으나 신앙 안에 있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신앙에 대한 신뢰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은사가 있는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때는 이런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요즘 나이 어린 친구들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참여자 2)

또한 비혼의 삶이 지속될 경우를 생각하며 두 가지로 교회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 해주었다. 첫째, 비혼의 삶이 지속될 경우 그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랐다. 그것은 노후의 건강과 경제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비혼 중년 여성들

---

4) 육(肉)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영(靈)적인 부분들, 기도, 말씀 등과 같은 것을 제외한 우리가 현실의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이 노후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둘째, 비혼 여성공동체를 위한 여가 활동장소 만들기 등 비혼의 삶이 지속될 경우를 예상하며 요청하는 부분이었다.

“우리에게 특강 같은 것을 해 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후준비 등...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을 찾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나 전문가가 사회를 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예배중심이라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 특강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 주시면,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부분에 도움 주시면 좋겠어요. 가계경제관리, 노후준비 등...특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100세 시대이니 경제관념이 제대로 잡히면 노후계획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봐요. 동료가 얘기하는 것과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은 다르겠죠”(참여자 2)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집이 있는 것처럼,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그 분들이 가실 곳이 없어요. 경로당처럼...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다가 싸우기도 한다고는 들었어요. 교회 내에 이런 장소를 제공하고 케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유지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케어하고 우리 후세들이 우리가 한 것처럼 또 우리를 돌볼 것이라 생각해요. 매일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말이죠. 경로당처럼... 내가 그 시설을 이용할 때쯤이면 자리가 잡혀 있겠지.. 지금 시작한다면...”(참여자 3)

“노인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고 격리보다는 서로 다른 세대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봐요...(중략) 사회의 일반적인 공동체나 국가에 바라는 점으로 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바라는 것이 더 건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일본과 같이 광범위하게 무언가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 아주 작은 공동 텃밭이라도 교회근처나 교회 옥상 등에 마련해 주는 거예요. 비혼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소일거리로 같이 일을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감사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미국의 아맛쉬마을과 같아요. 아주 작지만 뭔가를 생산해서(예를 들면 잼을 만든다든가... 작지만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이든...) 가난한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제공해 준다면 감사할 듯싶어요. 일반적으로 비혼 중년 여성들이 외롭다고 푸념하며 나이 드는 것 보다, 교회라는 곳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나이가 든다면 신앙인으로서 감사가 더해 질 거라 생각해요”(참여자 5)

## V. 논의 및 결론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계시면서 그들의 영적·육적 전인 구원의 회복에 대해 강조하셨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회적 약자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 내에서 비자발적 비혼의 삶을 살면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시선을 받아야 했으며, 그뿐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으며 이중, 삼중고의 고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들의 전인 구원의 회복을 위해 교회가 교회로써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불안정한 현실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에 있는 장로교 합동측 교회에 출석하며 과거와 현재 법적으로 혼인경험이 없는 40세에서 55세에 해당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현재의 삶에서 비혼 중년 여성은 비혼자로서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경험을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겪는다. 그러나 단순히 편견을 가지고 이들을 볼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비혼의 삶을 살게 된 원인이 가정의 형편이나 건강상의 질병 등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혼의 삶을 살게 되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래의 삶에 대해서 물질적, 정신적 ‘불안함’이 있다.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해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다. 셋째, 비혼 중년 여성의 교회에 대한 기대이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있다. 영적인 부분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육적인 부분은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 등 현실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요청하는 부분이다.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은 멀지 않은 미래에 노년층이 될 것이다. 이들의 전인구원의 회복은 앞으로 건강한 한국 교회 노년층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비혼 중년 여성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회 내의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증가는 사회적인 현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복지적인 역할은 시대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회가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을 복지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도 안고 있다. 먼저, 비혼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통한 가정생활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같은 성경적인 인물들을 통해 비혼들이 시선과 인식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사역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비혼 여성들이 섬길 수 있는 자리는 제한적이다. 집사의 직분은 성인 성도가 교회 내에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갖는 기본적인 직분이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들은 집사의 직분을 받지만 비혼 여성들은 집사의 직분을 잘 받지 않는 경향이 많다. 교회에서도 임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집사직분을 받지 않으면 그 이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교회사역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며 교회 내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비혼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직분을 받고 직분에 맞게 교회 내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비혼그룹에 대한 부서와 소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이들이 가진 특징은 특별하기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부서와 소그룹이 있어야 한다. 교회내의 소그룹은 결혼한 가정을 둔 성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부부소그룹이나 혹은 성별로 구분된 소그룹이라 할지라도 성인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혼 여성들은 소그룹에 참여가 점차 어려워진다. 무엇보다도 소그룹의 중심주제나 대화가 가정과 자녀양육이 주를 이루는데 비혼 여성들은 주제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함께 소그룹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비혼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나눔을 할 수 있는 부서와 소그룹을 교회 내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 교회는 비혼 여성의 장점과 약점에 맞는 사역의 장을 열어 주어야 한다. 비혼 여성은 활동성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사역적인 장점도 많다. 특히, 선교현장에서 가정보다 독신 사역이 유리한 곳이 많이 있다. 가정중심 사역은 기동성이 떨어지며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선교비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며 보안을 요하는 지역에서는 노출도 잘 되는 편이다. 그러나 독신 사역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비혼 여성들의 강점을 사역과 연결하고 훈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점을 활용하여 사역에 활용될 경우 당사자들의 삶에도 희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인식적, 제도적, 역할적인 면에서 변화를 주어 비혼 여성의 사역의 장을 열어 주고 강점중심의 삶을 유지하게 해 주며 동시에 복지대상으로서의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돕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서적인 외로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에 대해 교회가 적절한 대안을 찾아 한정된 환경 속에서 최선의 복지를 마련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 본 연구처럼 복지대상으로서의 비정규직 비혼 여성들의 필요들을 살

펴보며 거기에 맞는 대안제시의 안을 찾아가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부모 돌봄이라는 문제가 따라 오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좀 더 다양한 연구 참여자에게서 여러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또한 앞으로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사역의 강점과 교회의 제도적인 보안과 복지적인 대안제시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앞으로 교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비혼 여성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때 본 연구가 그 기초 자료가 되리라 사료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비자발적 비혼의 삶을 살게 된 교회 내의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사회와 교회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들의 전인 구원의 회복이 교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가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 것이다. 또한 교회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는 세상의 희망으로써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은나 외 (2015).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 여가현황과 여가증진방안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Kang, E. N. et al. (2015). *Leisure and Work in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KIHASA.]
- 강은영 (2010). *자발적 비혼 여성에 대한 자전적 생애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Kang, E. Y. (2010). *An Autobiographical Life History Study on the Voluntary Ever-single Wome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강혜란 (2003). 바울과 여성. *신약신학*, 35.
- [Kang, H. R. (2003). Paul and Women. *New Testament Theology*, 35.]
- 국가인권위원회 (2013). *비정규직여성근로자 임금실태조사*.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3). *Research on the Wage Status of Female Irregular Workers*.]
- 김경원 외 (2005). 질적연구를 통한 독신동기 요인과 남녀 차이. *대한가정학회*. 43(6).
- [Kim, K, & Kim, T.(2005). Qualitative study the causes of being single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6), 61-79.]
- 김미숙 (2016). 중소도시 중년비혼여성의 생활세계: 청주시 경우. *한국인구학*. 39(4).
- [Kim, M. S. (2016). Social Characteristics of Never-Married Women around Cheongju. *Korea Demography*, 39(4).]
- 김문수 (2016). 비정규직 경력단절 여성의 돌봄노동·가사노동이 노동시장 재진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 가족 양립제도와 근로조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력자원개발연구*, 19(4).
- [Kim, M. S. (2016). The Effects that Nurture Labor and Household Labor of Temporarily Employed Women Who Experience Work Discontinuity Have on Their Labor Market Re-entry Satisfaction Levels: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abor Conditions and Work and Family Life Balance Policy.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19(4).]
- 김명자 (2003).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 [Kim, M. J. (2003). *Middle-aged Development*. Seoul : Gyomoon.]
- 김유선 (2015).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Kim, Y. S. (2015). *Female Non-regular Workers Problem and Policy Tasks*. Korea



- Labour & Society Institute.]
- 김의원 외 (2006). **NIV 한영해설성경**. 서울: 성서원.
- [Kim, U. et al. (2006). *NIV Korean-English Commentary Bible*. Seoul : Biblehouse.]
- 김종숙 외 (2014).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Kim, J. S. et al (2014). *Employment and household econom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김태현, · 전길양 (2002). 노년기 부부의 결혼특성요인과 결혼안정성.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0(4).
- [Kim, T. H. & Jun, G. Y. (2002). Characteristics of the Marriage and Marital Stability among Elderly Coup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4).]
- 김효정 (2017). **30-40대 미혼여성 138만명의 그늘**. 주간조선, 2017. 9. 17일자.
- [Kim, H. J. (2017). *Shadows of 1.38 Million Unmarried Women in 30s and 40s*. Weekly Chosun, 2017. 9. 17.]
- 권혜자 (2017). **여성, 가족관련 법제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연구(V): 남녀고용평 등법 제정 3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Kwon, H. J. (2017). *A Study for Effectiveness Enhancement of Women and Family-Related Legislations(V):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for the Last 30 Years*.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류경희 · 왕석순 (2010). 기혼자가 인식하는 30-40대 미혼 여성의 이미지: 미혼여성 에 대한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3).
- [Ryu, K. H. & Wang, S. S. (2010). The Images of Unmarried Single Women as seen from the Viewpoint of Married Men and Women - Focusing on Stereotypes of Unmarried Single Women. *Korea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3).]
- 문은미 (2016). 여성의 경력단절과 고용불안: 30대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이론**, 35.
- [Moon, E. M. (2016). Career Breaks, Women and Employment Instability. *Journal of feminist theories and practices*, 35.]
- 박옥주 (2016).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 경험.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32(2).
- [Park, O. J. (2016). Cleaning-Contract Women Workers' Working Conditions and Experiences. Korea Association Women's Studie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32(2).]

- 박영희 역 (1985). **바울신학**. Ridderbos, H.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 [Park, Y. H. Trans. (1985).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Ridderbos, H. Seoul: KSRFA.]
- 성미애 (2014). 40, 50대 비혼 여성의 자유로운 비혼의 삶, 불안한 노후, 그리고 정책으로 부터의 소외. **한구가족관계학회지**, 19(2).
- [Sung, M. A. (2014). The Lives of Never-Married Women in Their 40s and 50s: Current Freedom, Unsecure Future and Exclusion from Policies. *Family Relations*, 19(2).]
- 성미애 (2014). 40,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 및 가족 담론. **한국가정관리학회**, 32(2).
- [Sung, M. A. (2014). Marriage and Family Discourse of Ever-Single Women in their 40s and 50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2).]
- 손병덕 · 황혜원 · 전미애 (2014). **가족복지론**. 서울: 학지사.
- [Shon, B. D., Hwang, H. W. & Jeon. M. A. (2014). *Family Welfare*. Seoul: Hakjisa.]
- 손승영 (2016).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여연시선**, 6.
- [Sohn, S. Y. (2016). The Poor Reality of Female Irregular Workers. *YDIeyes*, 6.]
- 송다솜 · 손승영 (2016). 2030대 파견관측직 여성의 노동경험과 젠더 특수성: 국내 3대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9(2).
- [Song, D. S. & Shon. S. Y. (2016). Labor Experience of Young Female Workers in Dispatched Sales-Promoting Job at Large-Scale Discount Stores. *Gender and culture*, 9(2).]
- 신경희 (2016).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험 연구: 학교 영양사의 노조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2(3).
- [Shin, K. H. (2016). The Collective Struggles of Korean School Dietician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32(3).]
- 이성은 · 박홍주 · 유정민 (2012).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Lee, S. E., Park, H. J. & Yoo, J. M. (2012). *Women Single Household in Seoul and policy implication*.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이재서 (2013). **기독교사회복지의 근원. 복지신학으로 가는 길**.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 [Lee, J. S. (2013). *The Roo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toward Welfare Theology*. Seoul: Worldmilal.]

- 엄구선 (2015). **기독교중년비혼여성의 결혼과 삶에 관한 생애사 연구: 사역경험이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성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Eum, K. S. (2015). *The Life History Study on the Marriage and Life of Christian Middle-aged Never-married Women : Focus on Women Who Have Experienced Ministry*.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Bible University.]
- 여성가족부 (2012).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 인력개발과.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 *A Study on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 for Women non-regular worker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omen's Resources Development Division.]
- 임경수 (2002). **중년 리모델링**. 서울:CUP
- [Lim, K. S. (2002). *Mid Life Remodeling*. Seoul : CUP.]
- 윤자영 (2013).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서울: 고용노동부
- [Yoon, J. Y. (2013). *A Study on Employment Effects Evaluation System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Seoul: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윤진 (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Yun, Jin(1985). *Psychology of Adult and Aging*. Seoul: Jung-ang Test Publisher.]
- 장미혜 (2013). 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빈곤해소방안. **보건복지정책포럼**, 206. 18-27
- [Jang, M. H. (2013). A poverty solution of low-income elderly women in Korea and their life condi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6. 18-27.]
- 진영은 역 (2002). **교육 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 Hatch, J. A. 서울: 학지사.
- [Jin, Y. E. Trans. (2002).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Hatch, J. A. Seoul: Hakjisa.]
- 통계청 (2018).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징**.
- [Statistics Korea (2018).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 한의신 (2003). 바울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 **신약신학**, 35.
- [Han, U. S. (2003). A Study on Paul's Perception of Marriage. *New Testament Theology*, 35.]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기타자료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http://ko.wikisource.org> (검색일 2018. 4. 3)

[Global world encyclopedia. <http://ko.wikisource.org> (2018. 4. 3)]

은누리교회 신문. 1017호, 2014. 9. 30일자 2면. “나도 결혼 할 수 있을까?” (검색일 2018. 4. 5)

[The Onnuri Weekly. 1017. (2014. 9. 30). “Can I Get Married?” (2018. 4. 5)]

쿠키뉴스. 2012. 8. 24. “강남스타일 교회 오빠 어디로 갔지?”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375300  
&cp=nv](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375300&cp=nv)(검색일 2018년 4월 4일)

[“Where’s Gangnam style brother gone?”, Kukinews(2012. 8. 24). Retrieved from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375300&cp=nv>(2018. 4. 4)]

논문초록

##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불안정한 현실과 교회의 역할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김주경 (총신대학교)

오대희 (교신저자/총신대학교)

본 연구는 교회 내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불안정한 삶을 이해하고 성경적 입장에 근거한 결혼관과 그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이루어졌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고아와 과부 등의 사회적 약자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비자발적 비혼의 삶을 사는 교회 내의 비혼 중년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사회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면서, 이들의 전인 구원의 회복이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그 결과 도출된 주제는 현재 비혼의 삶과 교회생활, 홀로 맞을 노후와 교회에서의 위치, 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이다. 이에 따른 결론으로써 성경에 근거한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사도바울의 주장에 근거하여 교회 내 비혼 중년 여성을 바라볼 때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적, 육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것은 곧 이들의 전인구원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주제어 :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 불안정한 현실, 교회의 역할

